

국내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경향분석*

정 옥 분¹⁾ 정 순 화²⁾ 김 경 은³⁾ 박 연 정⁴⁾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국내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흐름과 방법론적 특징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1980년대에서 2007년까지의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 233편을 기초로 하여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자료수집방법, 연구의 접근법),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집단따돌림의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 집단따돌림 피해나 가해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것이었고 주연구대상은 청소년과 초등학교학년이었으며, 질문지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횡단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측정도구로는 자가제작을 통한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시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행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에 들어서는 생태학적인 접근이나, 집단따돌림관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연구와 학교변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시대에 상관없이 질문지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험법이나 면접법 등과 같은 자료수집방법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자가제작된 척도를 이용하여 집단따돌림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주요어 : 집단따돌림, 왕따, 집단괴롭힘, 또래따돌림, 또래괴롭힘, 연구경향

* 본 연구는 2007년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연구교원 지원사업과 고려대학교 교내지원사업 학제간 연구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이라는 개념에 ‘왕따’, ‘또래따돌림’, ‘또래지위’, ‘또래괴롭힘’ ‘집단괴롭힘’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2)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

3) 교신저자 : 김경은,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E-mail : leejay48@chol.net)

4)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원

I. 서 론

최근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집단따돌림 문제는 발생하는 빈도나 강도 면에서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또래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한 학생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한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의 문제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군대나 직장에 다니는 성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집단따돌림 현상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 풍토병으로만 간주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집단따돌림’에 대한 논의가 매스컴을 통해 전개되기 시작했고 아울러 학문적인 논의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박진규, 2000).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무시아와 거부아들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998년 박경숙·손희권과 송혜정(1998)의 ‘학생들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왕따’라는 말이 학술논문의 주제로 처음 나타났으며 1990년대 후반 들어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학술논문 검색결과 2007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은 대략 500건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39.5%에 이

르고, 응답자의 80.4%가 교내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소년한국일보, 2006. 7.23) 학교폭력예방재단(2006)에 따르면 학교폭력피해자 중 집단따돌림이 3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폭행, 언어폭력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따돌림에 대한 접근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사례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지침이나 방향 제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집단따돌림’라는 용어는 집단괴롭힘(bullying), 또래따돌림, 왕따, 이지메(Ijime)와 혼용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전따, 은따 등과 같은 은어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Olweus(1994)는 따돌림은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고의적인 괴롭힘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인간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따돌림의 유형을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가하는 직접적인 따돌림과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어느 한 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또는 심리적 갈등과 부적응을 갖도록 괴롭히는 간접적인 따돌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이나 왕따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특정 집단에서 특정 대상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는 피해학생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가해학생들의 인성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주연·이은경·유나현과 이기학, 2004). 예를 들면, 아동기에 또래관계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통해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개념

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아동의 심리적인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sher, 1990). 아동기에 또래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은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거나 학교부적응, 폭력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Kupersmidt & Coie, 1985; Kupersmidt, Coie, & Dodge, 1990) 청소년기에 겪었던 집단따돌림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 대인관계 불안이나 공포를 조성하며,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게 된다(박경숙 · 손희권과 손혜정, 1998). 반면, 안정되고 지지적인 또래관계는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Kramer & Gottman, 1992) 이러한 또래친구의 역할은 그 역할이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gwell, 1998).

이러한 집단따돌림의 연구 분야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나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고찰(박진규, 2002; 이훈과 홍영오, 2003)과 집단따돌림의 정의 및 개념(권준모, 1999a)에 대한 연구들이 소수 이루어지고 있고, 집단따돌림 가해나 피해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은 무엇인지(박보경 · 한세영 · 최미경과 도현심, 2004; 이은혜 · 김정원과 오원정, 2001; 최용민과 이상주, 2003)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집단따돌림 가해나 피해학생들의 성격 특성이나 사회적 능력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또한 이러한 아동들의 환경적인 특성(가정환경 혹은 학교환경 등)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아동들은 공격성과 파괴적 행동이 강하고

협동심이 약하고 공감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Asher, 1990; Olweus, 1994)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작거나 힘이 약하고 소심하고 예민하며 수동적이고 수줍어하고 잘 울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불안과 우울,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Asher, 1990; Asher & Dodge, 1986; Olweus, 1993). 집단따돌림을 경험하는 피해자의 부모는 자녀에게 과잉보호적이고 과잉결속된 가족체계를 가지는 반면에 권위주의적이거나 무관심한 부모의 자녀는 공격성이 높고, 가해자 부모의 대다수는 폭력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체벌적인 훈육방법과 학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wers, Smith, & Binney, 1994).

또한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특성들을 개선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이나 중재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인지(곽금주, 1999; 윤성우와 이영조, 2007; 이은주, 2004), 이와 동시에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들(이봉건 · 남재봉 · 이종연 · 이상익 · 김수현과 이재신, 2001)이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오승환, 2007; 이상균, 2005; 이정숙과 권영관, 2007)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따돌림 연구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와 관련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고 종단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집단따돌림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제를 가장 관심 있게 다루는지, 집단따돌림 연구의 방법과 접근법은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 연구

대상에 따라 어떠한 주제를 가장 관심 있게 다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장 최근까지 이루어진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집단따돌림 연구의 흐름과 방법론적 특징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연구대상에 따라 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집단따돌림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국내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문헌고찰 자료수집 과정과 분석틀을 통해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자료수집

최근까지 이루어진 왕따에 관한 국내 논문을 조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왕따’, ‘또래따돌림’, ‘또래지위’, ‘집단따돌림’, ‘집단괴롭힘’을 키워드로 하여 국회도서관 DB, 국립중앙

1) ‘집단따돌림’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학위논문 380건과 학술지 95건이 검색되고, ‘왕따’로 검색할 경우 학위논문 116건, 학위논문 3건, ‘집단괴

도서관 DB와 고려대학교 DB로 석·박사학위 논문을 검색한 결과 1980년대 이후에서 2007년까지 발표된 집단따돌림 관련 학위 논문 중 일반대학원 석·박사논문은 111편이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B, KISS DB와 누리미디어 DB로 학술논문을 검색하여 이 중 등재 학술지와 등재후보 학술지의 논문으로 제한하자 122편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233편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이들 논문들을 기초로 집단따돌림 관련 변인과 연구의 흐름, 사용된 연구방법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2. 분석틀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집단따돌림 관련 연구를 연구주제,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및 연구 분야로 구분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해보았다. 분석틀을 구성하기에 앞서 인간발달 관련연구 중 연구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권준모, 1999b; 김경은과 김리진, 2004; 정옥분과 박연정, 2007) 및 집단따돌림에 대한 선행연구(곽금주, 1999; 권준모, 1999b; 송순, 2002; 오승환, 2007)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롭힘’의 경우 학위논문 78건, 학술지 32건, ‘또래지위’로 검색할 경우 학위논문 149건, 학술지 22건, ‘또래따돌림’으로 검색할 경우 학위논문 103건, 학술지 26건이 검색되었다. 하지만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검색된 논문들의 경우 ‘집단따돌림’에서 검색된 것이 ‘왕따’에서 검색되거나 석박사 학위논문들이 학술지 논문에 게재되어있는 등 중복 검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논문의 수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기본적인 분석들을 연구주제, 연구대상, 측정 도구, 연구방법 및 연구 분야로 선정하였고 이와 함께 세부적인 분석들을 구성하였다. 아동학 전문가 3인으로부터 본 분석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분석에 있어 최근 논문들에 나타난 관련변인들의 분석들은 표 1과 같다.

연구주제

집단따돌림 연구의 관련변인은 크게 집단따돌림의 개념 및 정의,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변인,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 집단따돌림 관련 측정도구 개발과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가지 관련변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들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측정 도구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연구의 접근법	
1. 개념 및 정의				1. Bullying-Behavior Scale (Neary & Joseph, 1994)
2. 개인적특성				2. Peer-Victimization Scale (Callahan, & Joseph, 1996)
2-1 인성				3. 집단따돌림피해평가지 (임상심리학회, 1997)
2-2 사회성				4. Bullying-Victim Questionnaire (Olweus, 1993)
2-3 운동(신체)				5.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행동척도 (이혜경, 김혜원, 2001)
2-4 정서				6. 한국형변형또래지명설문지(K-MPNI)
2-5 인지				7. 집단따돌림행동검사 (이춘재, 박금주, 1999).
3. 환경변인	1. 유아			8. 또래수용도 평정도구 (Asher, Markell, & Hymel, 1981)
3-1 부모	2. 초등	1. 실험법	1. 횡단적 접근법	9. 사회성측정법(Coie & Dodge, 1983)
3-2 사회	저학년	2. 관찰법		10.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Crick & Bigbee, 1998)
3-3 학교	3. 초등	3. 면접법	2. 종단적 접근법	11. 외톨이질문지(이규미 외, 2001)
4. 생태학적접근 (통합적 접근)	고학년	4. 질문지법		12. 왕따질문지(신성웅 외, 2000)
5. 예방프로그램	4. 청소년	5. 문헌연구		13. Social Support(Harter, 1985)
6. 프로그램 효과 검증(중재)	5. 성인			14. 기타(자가제작, 경험여부, 관찰 등)
7. 측정과 평가				
8. 실태조사				
9.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				
10. 기타				

첫째, 집단따돌림의 **개념 및 정의**란 집단따돌림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포함된다.

둘째, 집단따돌림 **아동들의 개인적 특징**은 집단따돌림이나 또래따돌림을 당하는 아동들이 갖는 인성특징이나 성향으로 여기에는 아동의 자아개념, 자존감, 사회적 기술, 행동 및 능력, 정서, 성취 욕구, 인지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셋째, **환경변인**은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교사와 사회의 역할과 관련된 변인이다. 즉,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수준, 가정환경변인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행동,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사의 역할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신념, 교사의 중재 노력 및 방법 등이 포함된다.

넷째, **생태학적 접근**은 집단따돌림 연구와 관련하여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포함된다.

다섯째, **예방프로그램**은 집단따돌림을 미리 방지하고 또래 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나 매체가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동화, 컴퓨터, 놀이, 독서, 음악, 무용, 동작활동 등을 통한 교육방법들이 여기에 속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효과검증**은 또래 간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까지 검증한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집단따돌림 중재프로그램, 집단따돌림 개선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일곱째, **집단따돌림 측정 및 평가**는 집단따돌림의 행태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집단따돌림의 정도 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여덟째,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현황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아홉째,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피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였다. 유아는 만 3, 4, 5세에 해당되며 이 시기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사회적 반경이 좁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유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아기부터 사회적 환경이 부모에서 또래나 교사로 확산됨을 의미하며 유아기부터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해당되며 이 시기는 아동의 주요 환경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장됨에 따라 학교나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정옥분과 정순화, 2007). 초등학교 고학년은 초등학교 4, 5, 6학년에 해당된다. 최근 들어 아동들의 영양섭취가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성장이 빨라짐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사춘기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로부터는 독립됨과 동시에 의존하기를 원하고 친밀한 또래와의 관계는 보다 깊어지게 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대인관계가 더욱 확장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성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할(Cole & Cole, 1992; Costin & Jones, 1992) 뿐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끝으로 성인기에도 여전히 친구 혹은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친밀한 이성 친구를 통해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자료수집방법과 연구의 접근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실험법,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험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효과검증을 하는 연구방법이고, 관찰법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면접법은 면접자가 피면접자에게 구두로 질문을 한 후 피면접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며, 질문지법은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방법이다. 그리고 문헌연구법은 연구하려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연구의 접근법은 횡단법과 종단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횡단적 접근법이란 일정 시기

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연령별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이고, 종단적 접근법이란 특정 개인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현재 우리나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들을 제시하고, 어떤 측정도구가 어떤 주제에서 어느 대상에게 주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1에 제시된 측정도구는 집단따돌림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들 중 타당도와 신뢰도가 제시된 것만을 포함시켰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거나 자가제작한 척도는 기타에 포함시켰다. 척도 중 ‘사회성측정법(Coie & Dodge, 1983)’과 ‘또래수용도 평정도구(Asher & Hymel, 1981)’는 또래집단 내에서의 지위(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나 또래 집단내의 수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고, ‘외톨이질문지(이규미 외, 2001)’는 친구관계에서 친구가 없는 아이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Bullying-Behavior Scale(Neary & Joseph, 1994)’, ‘Peer-Victimization Scale(Callahan, & Joseph, 1996)’, ‘집단따돌림피해평가지(임상심리학회, 1997)’, ‘집단따돌림행동검사(이춘재, 박금주, 1999)’와 ‘한국형변형또래지명설문지(K-MPNI)(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2000)’는 집단따돌림 유형분류(가해, 피해, 가해/ 피해, 비교집단)와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Bullying-Victim Questionnaire(Olweus, 1993)’와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행동척도(이혜경, 김혜원, 2001)’는 집단따돌림에서의 피해 및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Crick & Cropeter, 1996)’와 ‘왕따질문지(신성웅 외, 2000)’는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또한, ‘Social Support(Harter, 1985)’는 또래친구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연구분야

등재학술지 혹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에 따라 크게 7가지²⁾로 구분하였다. 학술지를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술체육학과 복합학으로 분류하여 어느 분야에서 집단따돌림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경향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집단따돌림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주제, 연

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주제는 집단따돌림 관련변인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여 살펴보았고, 연구방법은 자료수집방법 및 연구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집단따돌림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이 48.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환경변인(16.1%), 프로그램 효과검증(6.7%), 생태학적 접근(6.0%), 실태조사(5.2%), 개념 및 정의(4.1%), 기타(4.1%), 측정 및 평가(3.4%), 예방프로그램(3.0%),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3.0%)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성이 14.6%, 사회성이 14.2%, 정서가 9.0%, 운동이 7.9%, 인지가 2.6%로 나타났는데,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특히 인성과 사회성을 살펴본 연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관련된 연구가 8.6%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4.9%), 사회(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주제 이외의 내용으로는 의복유형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실내정원의 도입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참여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대상은 청소년이 45.2%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39.4%), 초등학교 저학년(6.6%), 유아(5.4%), 성인(2.1%),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합한 경우 전체 연구대상의 84.6%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따돌림 연

2)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지를 분야별로 나눈 것을 기초로 하여 총 7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2. 1980년부터 2007까지의 집단따돌림 연구의 실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1. 개인적 특성	1-1. 인성	39(14.6)	1. 유아	13(5.4)	자료수집방법	
	1-2. 사회성	38(14.2)	2. 초등(저학년)	16(6.6)	1. 실험법	21(9.1)
	1-3. 운동(신체)	21(7.9)	3. 초등(고학년)	95(39.4)	2. 관찰법	16(7.0)
	1-4. 정서	24(9.0)	4. 청소년	109(45.2)	3. 면접법	9(3.9)
	1-5. 인지	7(2.6)	5. 성인	5(2.1)	4. 질문지법	158(68.7)
2. 환경변인	2-1. 부모	23(8.6)	6. 기타	3(1.2)	5. 문헌고찰	23(10.0)
	2-2. 사회	7(2.6)	전체	241(100)	6. 기타	3(1.3)
	2-3. 학교	13(4.9)			전체	230(100)
3. 생태학적 접근(통합적 접근)		16(6.0)				
4. 개념 및 정의		11(4.1)			연구의 접근법	
5. 예방프로그램		8(3.0)			1. 횡단적 접근법	202(97.6)
6. 프로그램 효과검증(중재)		18(6.7)			2. 종단적 접근법	5(2.4)
7. 측정 및 평가		9(3.4)			전체	207(100)
8. 실태조사		14(5.2)				
9.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		8(3.0)				
10. 기타		11(4.1)				
전체		267(100)				
측정도구(%)			연구분야(%)			
1. Bullying-Behavior Scale(Neary & Joseph, 1994)		8(4.3)	1.인문학	5(4.1)		
2. Peer-Victimization Scale(Callahan & Joseph, 1996)		3(1.6)	2.사회과학	77(63.1)		
3. 집단따돌림피해평가지(임상심리학회, 1997)		1(.5)	3.자연과학	18(14.8)		
4. Bullying-Victim Questionnaire(Olweus, 1993)		2(1.1)	4. 의약학	15(12.3)		
5.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행동척도(이혜경, 김혜원, 2001)		1(.5)	5. 복합학	7(5.7)		
6. 한국형변형또래지명설문지(K-MPNI)(김영신 외, 2001)		3(1.6)	전체	122(100)		
7. 집단따돌림행동검사(이춘재와 박금주, 1999)		8(4.3)				
8. 또래수용도 평정도구(Asher et al.,1981)		2(1.1)				
9. 사회성측정법(Coie & Dodge, 1983)		50(27.2)				
10.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Crick & Grotpeter, 1996)		5(2.7)				
11. 외톨이질문지(이규미 외, 2001)		2(1.1)				
12. 왕따질문지(신성웅 외, 2000)		9(4.9)				
13. Social Support(Harter, 1985)		2(1.1)				
14. 기타(자가제작, 경험여부, 관찰 등)		88(47.8)				
전체		184(100)				

구는 단연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문헌고찰연구가 3편 있었으며 이를 기타항목에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료수집방법과 연구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는 질문지법이 68.7%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문헌고찰(10.0%), 실험법(9.1%), 관찰법(7.0%), 면접법(3.9%), 기타(1.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접근법에 있어서는 횡단적 접근법이 97.6%, 종단적 접근법이 2.4%로 대부분의 집단따돌림 관련 연구는 횡단적 접근법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 관련 측정도구³⁾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척도 혹은 단지 일반적인 경험여부를 묻거나 관찰하는 정도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4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Coie와 Dodge의 사회성측정법이 27.2%로 많았고, 신성웅 외(2000)의 왕따질문지(4.9%), Neary와 Joseph(1994)의 Bullying-Behavior Scale(4.3%), 이춘재와 박금주(1999)의 집단따돌림행동검사(4.3%), Crick

과 Grottpeter(1996)의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2.7%), Callahan과 Joseph(1996)의 Peer-Victimization Scale(1.6%), 김영신 외(2001)의 한국형 또래지명 설문지(1.6%), Olweus(1993)의 Bullying-Victim Questionnaire(1.1%), Asher외(1981)의 또래수용도 평정도구(1.1%), 이규미 외(2001)의 외톨이질문지(1.1%), Harter(1985)의 Social Support(1.1%), 이해경과 김혜원(2001)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행동척도(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회지를 중심으로 연구분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집단따돌림 관련 연구는 사회과학분야(63.1%)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자연과학(14.8%), 의학(12.3%), 복합학(5.7%), 인문학(4.1%) 순으로 나타났다.

2.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경향

국내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시대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나누어 집단따돌림 관련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주제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시대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980년대에는 집단따돌림 관련 논문이 1편이었고, 1990년대에는 38편, 2000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는 228편으로 2000년 이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가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대별 연구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 본 분석틀에 포함된 측정도구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방법을 살펴보면, 집단따돌림 관련 측정도구의 타당도검증의 경우,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제시하였거나 준거관련타당도를 제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의 경우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가제작척도의 경우, 기존의 2-3개 척도에서 일부분항을 선택하여 새롭게 문항을 구성한 후 타당도 검증없이 내적합치도만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신뢰도 검증절차 없이 척도로 사용한 경우도 빈번하였다.

표 3.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주제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7	
1-1. 인성	1(100)	1-1. 인성	5(13.2)	1-1. 인성	33(14.5)
		1-2. 사회성	7(18.4)	1-2. 사회성	31(13.6)
		1-3. 운동(신체)	6(15.8)	1-3. 운동(신체)	15(6.6)
		1-4. 정서	3(7.9)	1-4. 정서	21(9.2)
		1-5. 인지	3(7.9)	1-5. 인지	4(1.8)
		2-1. 부모	2(5.3)	2-1. 부모	21(9.2)
		2-2. 사회	1(2.6)	2-2. 사회	6(2.6)
		2-3. 학교	1(2.6)	2-3. 학교	12(5.3)
		4. 개념 및 정의	5(13.2)	3. 생태학적 접근	16(7.0)
		5. 예방프로그램	1(2.6)	4. 개념 및 정의	6(2.6)
		7. 측정 및 평가	1(2.6)	5. 예방프로그램	7(3.1)
		8. 실태조사	1(2.6)	6. 프로그램 효과검증	18(7.9)
		9.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	1(2.6)	7. 측정 및 평가	8(3.5)
		10. 기타	1(2.6)	8. 실태조사	13(5.7)
				9.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	7(3.1)
				10. 기타	10(4.4)
전체	1(100)	전체	38(100)	전체	228(100)

1980년대에는 개인적 특성 중 인성 관련연구가 1편 있었고, 1990년대에는 개인적 특성 관련연구가 6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념 및 정의(13.2%), 환경변인(10.5%), 예방프로그램(2.6%), 측정 및 평가(2.6%), 실태조사(2.6%),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2.6%), 기타(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성(18.4%), 운동(15.8%), 인성(13.2%), 정서(7.9%), 인지(7.9%)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고, 환경변인과 관련하여서는 부모(5.3%), 사회(2.6%), 학교(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에도 개인적 특성(45.7%)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경변인(17.1%), 프로그램 효과

검증(7.9%), 생태학적 접근(7.0%), 실태조사(5.7%), 기타(4.4%), 측정 및 평가(3.5%), 예방프로그램(3.1%),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3.1%), 개념 및 정의(2.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인성(14.5%), 사회성(13.6%), 정서(9.2%), 운동(6.6%), 인지(1.8%)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환경변인과 관련하여서는 부모(9.2%), 학교(5.3%), 사회(2.6%)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0년대 집단따돌림 관련 연구가 급증하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생태학적 접근방식을 이용한 연구가 등장하였고, 환경변인 중 학교환경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대상

집단따돌림 관련연구를 중심으로 시대별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1980년대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 있었고, 1990년대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5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29.0%), 유아(9.7%), 초등학교 저학년(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집단따돌림 관련연구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7.8%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36.8%로 많았으며, 그 밖에 초등학교 저학년(7.2%), 유아(4.8%), 성인(2.4%)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문헌

고찰연구는 기타항목에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방법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자료수집방법과 연구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시대별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1980년대는 설문지를 이용한 논문이 1편 있었고, 1990년대는 자료수집방법 중 질문지법이 6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문헌고찰(23.5%), 관찰법(8.8%), 면접법(2.9%)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도 여전히 질문지법(69.2%)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법(10.8%)을 이용한 경우도 생겨났으며, 문헌고찰(7.7%), 관찰법(6.7%), 면접법

표 4.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대상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7	
3. 초등(고학년)	1(100)	1. 유아	3(9.7)	1. 유아	10(4.8)
		2. 초등(저학년)	1(3.2)	2. 초등(저학년)	15(7.2)
		3. 초등(고학년)	17(54.8)	3. 초등(고학년)	77(36.8)
		4. 청소년	9(29.0)	4. 청소년	100(47.8)
		6. 기타	1(3.2)	5. 성인	5(2.4)
				6. 기타	2(1.0)
전체	1(100)	전체	31(100)	전체	209(100)

표 5.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자료수집방법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7	
4. 질문지법	1(100)	2. 관찰법	3(8.8)	1. 실험법	21(10.8)
		3. 면접법	1(2.9)	2. 관찰법	13(6.7)
		4. 질문지법	22(64.7)	3. 면접법	8(4.1)
		5. 문헌고찰	8(23.5)	4. 질문지법	135(69.2)
				5. 문헌고찰	15(7.7)
				6. 기타	3(1.5)
전체	1(100)	전체	34(100)	전체	195(100)

표 6.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접근법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7	
1. 횡단적 접근법	1(100)	1. 횡단적 접근법	25(100)	1. 횡단적 접근법 2. 종단적 접근법	176(97.2) 5(2.8)
전체	1(100)	전체	25(100)	전체	181(100)

(4.1%), 기타(1.5%)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기타 자료수집방법에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현상에 관한 기술 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질적인 자료를 사용한 사례연구법 등이 있었다.

연구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 횡단적 접근법을 이용하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0년대는 횡단적 접근법(97.2%)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종단적 접근법(2.8%)을 이용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측정도구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측정도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1980년대에는 사회성측정법을 이용한 논문이 1편 있었고, 1990년대에는 사회성측정법을 이용한 경우가 8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8.7%), Bullying-Behavior Scale(4.3%)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는 제시한 측정도구 이외의 기타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성측정법(18.1%), 집단따돌림 질

표 7. 시대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측정도구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7	
9. 사회성측정법	1(100)	1. Bullying-Behavior Scale	1(4.3)	1. Bullying-Behavior Scale	7(4.4)
		9. 사회성측정법	20(87.0)	2. Peer-Victimization Scale	3(1.9)
		14. 기타	2(8.7)	3. 집단따돌림피해평가지	1(.6)
				4. Bullying-Victim Questionnaire	2(1.3)
				5.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행동척도	1(.6)
				6. 한국형변형또래지명설문지	3(1.9)
				7. 집단따돌림행동검사	8(5.0)
				8. 또래수용도 평정도구	2(1.3)
				9. 사회성측정법	29(18.1)
				10.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5(3.1)
				11. 외톨이질문지	2(1.3)
				12. 집단따돌림질문지	9(5.6)
				13. Social Support	2(1.3)
				14. 기타	86(53.8)
전체	1(100)	전체	23(100)	전체	160(100)

표 8. 연구대상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주제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주제	
유아	1-1. 인성	1(9.1)	1-2. 사회성	4(26.7)
	1-2. 사회성	2(18.2)	1-4. 정서	1(6.7)
	1-3. 운동(신체)	3(27.3)	2-3. 학교	2(13.3)
	1-4. 정서	1(9.1)	3. 생태학적 접근	1(6.7)
	2-1. 부모	1(9.1)	4. 개념 및 정의	1(6.7)
	2-3. 학교	1(9.1)	6. 프로그램 효과검증	2(13.3)
	6. 프로그램 효과검증	1(9.1)	8. 실태조사	3(20.0)
	7. 측정 및 평가	1(9.1)	10. 기타	1(6.7)
전체	11(100)	전체	15(100)	
초등 (고학년)	1-1. 인성	8(9.6)	1-1. 인성	22(17.9)
	1-2. 사회성	14(16.9)	1-2. 사회성	16(13.0)
	1-3. 운동(신체)	7(8.4)	1-3. 운동(신체)	4(3.3)
	1-4. 정서	6(7.2)	1-4. 정서	15(12.2)
	1-5. 인지	3(3.6)	1-5. 인지	1(.8)
	2-1. 부모	5(6.0)	2-1. 부모	14(11.4)
	2-2. 사회	3(3.6)	2-2. 사회	2(1.6)
	2-3. 학교	2(2.4)	2-3. 학교	8(6.5)
	3. 생태학적 접근	8(9.6)	3. 생태학적 접근	9(7.3)
	4. 개념 및 정의	1(1.2)	4. 개념 및 정의	1(.8)
	5. 예방프로그램	2(2.4)	5. 예방프로그램	6(4.9)
	6. 프로그램 효과검증	9(10.8)	6. 프로그램 효과검증	8(6.5)
	7. 측정 및 평가	4(4.8)	7. 측정 및 평가	4(3.3)
	8. 실태조사	8(9.6)	8. 실태조사	6(4.9)
9.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	2(2.4)	9.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	4(3.3)	
10. 기타	1(1.2)	10. 기타	3(2.4)	
전체	83(100)	전체	123(100)	
성인	1-1. 인성	1(16.7)		
	1-2. 사회성	1(16.7)		
	2-1. 부모	1(16.7)		
	2-3. 학교	1(16.7)		
	10. 기타	2(33.3)		
전체	6(100)			

문지(5.6%), 집단따돌림 행동검사(5.0%), Bullying-Behavior Scale(4.4%),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3.1%), Peer-Victimization Scale(1.9%), 한국형변형 또래지명설문지(1.9%), Bullying-Victim Questionnaire (1.3%), 또래수용도 평정도구(1.3%), 외톨이질문지(1.3%), Social Support (1.3%), 집단따돌림 피해 평가지(6%),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행동척도(6%)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주제

연구대상별로 살펴본 집단따돌림 관련 연구 주제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은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성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23편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83편, 초등학교 저학년은 15편, 유아는 11편, 성인 대상 논문은 6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연구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6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변인(18.2%), 프로그램 효과검증(9.1%), 측정 및 평가(9.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특성 변인에 있어서는 운동과 사회성 관련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연구 또한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2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실태조사(20.0%), 환경변인 중 학교와 관련된 연구(13.3%), 프로그램 효과검증(13.3%), 생태학적 접근(6.7%), 개념 및 정의(6.7%), 기타(6.7%)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45.7%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환경변인(12.0%), 프로그램 효과검증(10.8%), 생태학적 접근(9.6%), 실태조사(9.6%), 측정 및 평가(4.8%), 예방프로그램(2.4%),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2.4%), 개념 및 정의(1.2%),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는 사회성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인성, 운동, 정서, 인지에 관련 연구도 있었다.

한편 청소년은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4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변인(19.5%), 생태학적 접근(7.3%), 프로그램 효과검증(6.5%), 예방프로그램(4.9%), 실태조사(4.9%), 측정 및 평가(3.3%),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3.3%), 기타(2.4%), 개념 및 정의(8%)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성(17.9%), 사회성(13.0%), 정서(12.2%)로 많고, 운동(3.3%), 인지(8%) 관련 연구도 있었다.

끝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33.4%), 환경변인(33.4%)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 기타로 군대나 조직사회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집단따돌림 논문들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측면에서 살펴본 후, 시대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연구대상에

따라 어떠한 주제로 연구가 가장 많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집단따돌림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환경변인, 프로그램 효과검증, 생태학적 접근, 실태조사, 개념 및 정의, 기타, 측정 및 평가, 예방프로그램,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의 과반수 정도가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해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들의 성격 혹은 사회적 기술이나 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따돌림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고 2000년 들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상관연구에서 벗어나 기존의 축적된 이론적 결과를 토대로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중재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혹은 집단따돌림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등과 같이 그 결과를 실제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였고, 질문지법을 이용한 자료수집방법이 주를 이루었고, 주로 횡단적 연구법을 사용하였으며 집단따돌림 척도는 자

가제작된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중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집단따돌림을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학교폭력예방재단, 2006) 청소년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늘어나기는 했으나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한 점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통해 심층적인 결과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자 자신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아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예로, 의복과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의복행동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에 관해서만 살펴보았고, 스포츠 참여활동과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스포츠 참여 여부와 집단따돌림의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연구 분야에만 한정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의학, 스포츠와 예술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들 간의 교류를 통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시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집단따돌림의 연구는 대부분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해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

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조사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집단따돌림 연구주체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한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인성과 사회성을 살펴본 연구가 많고 환경변인 중에서는 특히 부모변인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주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정환경이나 또래 혹은 부모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집단과정에 집중되어 왔다(Kaltiala-Heino, Rimpela, Rantanen, & Rimpela, 2000)는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해하는 아동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부족한 특성을 보완해주거나 개선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한 고등학생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학생을 살해한 일이 발생하였다(동아일보, 2001, 10. 14). 이는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방지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가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해하는 아동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더불어 집단따돌림이라는 것은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이나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자나 추종자가 없으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나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암묵적인

동조자나 추종자 집단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며, 다른 아동들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 등에 대해 지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나마 2000년대에 접어들어 집단따돌림 연구가 급증하면서 집단따돌림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생태학적인 접근방식을 이용한 연구가 등장하였고, 환경변인 중 학교환경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연구는 주로 사회성측정법을 이용한 또래지위를 통해 인기아나 무시·거부아들의 인성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집단따돌림이나 왕따 현상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고(강은희·이은희와 임은정, 2002) 집단따돌림의 수위가 점차 강해져서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로 확산되어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히 개인 대 개인 간의 갈등차원을 넘어서 범죄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학생을 살해한 사건 등을 살펴볼 때, 이는 가해와 피해의 과정이 한 개인에게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해-피해의 상호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박

경숙, 1999)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집단따돌림 현상은 단순히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를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개입이 보다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도당기라고 할 만큼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고, 또래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시기에서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문제를 보일 경우 이는 이후의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이후 중고등학교에서의 또래집단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측면에서 볼 때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행하고 있는 아동들의 개인 특성 연구를 토대로 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집단따돌림을 조장하는 학교나 사회 현장에서의 집단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시킴으로써 아동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집단따돌림 연구의 경우 질문지법을 이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연구주체가 집단따돌림 가해아나 피해아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이거나 집단따돌림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가 주를 이루다 보니 질문지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이와 더불어

어 특정 시기에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횡단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집단따돌림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단따돌림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질문지법을 통해 개인이 보고하게 될 경우, 왜곡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집단따돌림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될 수도 있는 등의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관찰법이나 면접법, 혹은 사례연구법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집단따돌림을 당하던 아동들이 어떠한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점이 향상되었으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게 될 때, 집단따돌림의 해결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최근 들어 자가제작된 척도의 사용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이 질문지법임을 고려해볼 때,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제시한다. 질문지법에 있어 척도의 타당도는 겉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로, 타당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집단따돌림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도 신뢰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워낙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에 적절한 척도를 자가제작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자가제

작 척도의 경우 기존의 몇 가지 척도를 혼합해서 사용하거나 기존의 척도 중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문항)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⁴⁾가 많으므로, 이러한 척도의 부정확성이 자신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연구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척도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연구자들은 연구를 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척도가 외국의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적 특성에 맞는 집단따돌림 관련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연구대상별 집단따돌림 연구의 관련 주제를 보면 연구대상에 상관없이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통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집단따돌림 연구의 호

름에 대해 양적인 측면에서 종단적으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연구의 흐름에 초점을 두다 보니, 집단따돌림 연구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행하는 아동들의 구체적인 특성이나 부모의 특성들의 결과나 기존에 개발된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효과의 결과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질 높은 집단따돌림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와 등재학술지에 실린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국내 집단따돌림 연구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집단따돌림 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개선해야 할 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4)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집단따돌림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한국 형사정책연구원(1997)과 김용태와 박한샘(1997) ~, 김석진(199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9개 항목은 선정하였다. 집단따돌림의 하위척도는 4개 요인이며 ~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의 피해나 가해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와 같이 임의로 기존척도에서 문항을 추출하여 재조직한 후 타당도 검증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 강은희 · 이은희 · 임은정 (2002).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445-460.
- 곽금주 (1999).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프로그램(I):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연구*, 5(2), 105-122.

- 권준모 (1999a). 한국의 왕따 현상의 개념화와 왕따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59-72.
- 권준모 (1999b). 국내외 집단따돌림 연구방법의 개관.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5, 45-56.
- 김경은 · 김리진 (2004). 국내아동대상 창의성 연구의 경향분석: 1980년 이후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1(3), 101-117.
- 김영신 · 고윤주 · 노주선 (2001). 한국형변형또래지명설문지 개발에 관한 연구: 집단따돌림 및 또래괴롭힘 측정도구. *정신과학의학*, 40(5), 867-875.
- 박경숙 (1999). 왕따 ·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 왕따 ·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경희대 교육문제연구소*.
- 박경숙 · 손희권 · 송혜정 (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보경 · 한세영 · 최미경 · 도현심 (2004).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45-54.
- 박진규 (2000). 청소년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에 대한 사회 · 문화적 일 고찰. *청소년학연구*, 7(20), 39-71.
- 소년한국일보 (2006. 7. 23). 초중고교생 10명 중 4명 집단따돌림경험.
- 송순(2002). 아동의 또래지위지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47-159.
- 신성웅 · 권석우 · 신민섭 · 조수철 (2000). 학교 폭력피해자의 정신병 실태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 124-143.
- 오승환 (2007).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5, 74-98.
- 이규미 · 구자경 · 김은정 · 이시형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7-162.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 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 윤성우 · 이영조 (2007). 집단 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271-292.
- 이봉건 · 남재봉 · 이종연 · 이상익 · 김수현 · 이재신 (2001). 또래아동의 비행 행동이 피해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개선방안 - 집단 괴롭힘 소위 “왕따”(bullying)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413-442.
- 이은주 (2004). 집단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1(1), 141-165.
- 이은혜 · 김정원 ·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 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정숙 · 권영란 (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6(1), 32-40.
- 이춘재 · 광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특성 및 실태. 서울: 집문당.
- 이해경 ·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훈 · 홍영오 (2003). 한국인의 왕따 현상의 특징. *피해자학연구*, 10(2), 102-122.
- 전주연 · 이은경 · 유나현 · 이기학 (2004). 집단 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23-35.
- 정옥분 · 정순화 (2007).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옥분 · 박연정 (2007). 한국 인간발달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학회지 ‘인간발달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성장보고서*, 75-99.
- 최용민 · 이상주 (2003).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0(4), 459-485.
- 학교폭력예방재단 (2006).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학교폭력예방재단.
- 한국임상심리학회 (1997). *집단따돌림피해평가지*.
- Asher, S. R.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Dodge, K. A. (1986). Identifying children who are rejected by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444-449.
- Asher, S. R., Markell, R. A., & Hymel, S. (1981). Identifying Children at Risk in Peer Relations: A Critique of the Rate-of-Interaction Approach to Assessment. *Child Development*, 52(4), 1239-1245.
- Bagwell, C. L. (1998). Preschoolers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ion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owers, L., Smidth, P. K., & Binney, V. (1994). Coercion and power in the families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371-378.
-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163.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Cole, M., & Cole, S.(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ed. NY: W. H. Freeman and Company.
- Costin, S. E., & Jones, D. C. (1992). Friendship as a facilitator of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prosocial interventions among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41-947.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37-347.
- Harter, S. (1985).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Manual.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Press.
- Kaltiala-Heino, R., Rimpela, M., Rantanen, P., Rimpela, A. (2000). Bullying at school-an indicator of adolescents at risk for mental disorders. *Journal of Adolescence*, 23, 661-674.

- Kramer, L., & Gottman, J. M. (1992). Becoming an sibling: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85-699.
- Kupersmidt, J. B., & Coie, J. D. (1985). *The prediction of delinquency and social-related problems from childhood peer status*. Unpublished manuscript, Duke University, Durham.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183-186.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 Earlbaum.
- Olweus, D. (1994).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1 차원고접수 : 2008. 01. 31.
수정원고접수 : 2008. 02. 18.
최종게재결정 : 2008. 02. 20.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into Bullying in Korea

Ock-Boon Chung¹⁾ Soon-Hwa Chung²⁾ Kyoung-Eun Kim³⁾ Youn-Jung Park³⁾

¹⁾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³⁾Institute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cent trends of research into bullying in Korea. Two hundred and thirty three theses and articles reported in registered (proposed) scientific journals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published from 1980 to 2007, were reviewed in terms of their research themes, participants, methods, and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st frequently visited themes in bullying research wer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bullies themselves and their victims.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adolescents. The use of questionnaires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 research tool used. Moreover, most researchers used self-constructed assessment scales, and did so without reporting data in terms of either reliability or validity.

Key words : bullying, research trend